

2025년 3월 2일 연중 제8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8주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은 지혜의 샘이며 삶의 규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아들을 귀를 열어 주시어, 교만으로 형제들을 그릇되게 판단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성가 :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본기도

†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집회서 27장 4절-7절

화답송 :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5장 54절-58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6장 39절-45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봉 헌 :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 성 체 : 496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영성체 후 묵상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우리 모두 마음의 선한 공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는 선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합시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9번 ‘주를 따르리’

2025년 3월 9일 / 사순 제1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막에서 부르짖는 교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말씀의 빵으로 우리를 길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감싸 주십니다. 우리가 절제와 기도로 끈질긴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입당성가 : 115번 '수난 기약 다다르니'

본기도

†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신명기 26장 4절-10절

화답송 :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제 2 독서 : 로마서 10장 8절-13절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루카 복음 4장 1절-13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봉 헌 : 510번 '주님께 올리는 기도'

영 성 체 : 159번 ‘세상의 참된 행복’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광야로 가시어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19번 ‘주님은 우리 위해’

2025년 3월 16일 / 사순 제2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위대하시고 진실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당신 얼굴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십자 가의 신비를 굳게 믿고 성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합시다.

입당성가 : 116번 ‘주 예수 바라보라’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창세기 15장 5절-12절, 17절-18절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제 2 독서 : 필리피서 3장 17절-4장 1절

복음 환호송

◎ 길ियो 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यो 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루카 복음 9장 28절-36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봉 헌 : 332번 ‘봉헌’

영 성 체 : 151번 ‘주여 임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21번 ‘한 많은 슬픔에’

2025년 3월 23일 / 사순 제3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아들딸들을 결코 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끊임없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입당성가 : 117번 ‘지극한 근심에’

본기도

† 기도합니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탈출기 3장 1절-8절, 13절-15절.

화답송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0장 1절-6절, 10절-12절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 루카 복음 13장 1절-9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봉 헌 :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 성 체 : 164번 ‘떡과 술의 형상에’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를 잘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올해만 그냥 두시라고 하느님께 간청하시며,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시는 포도 재배인이십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2025년 3월 30일 / 사순 제4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뉘우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모두 사랑의 품으로 받아 주시고 빛나는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어린양의 파스카 잔치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입당성가 : 118번 ‘골고타 언덕’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여호수아기 5장 9절. 10절-12절

화답송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서 : 코린토 2서 5장 17절-21절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루카 복음 15장 1절-3절. 11절-32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봉 헌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 성 체 : 188번 ‘천사의 양식’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서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우리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에 달려 오시어 목을 껴안으시고 입을 맞추어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절인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권고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0번 ‘성요셉 찬양하세’